

IUPAC 차기회장에 진정한 고려대 교수



지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연합회(IUPAC) 제44차 정기총회에서 고려대학교 화학과 진정한 교수가 참가 회원국의 직선에 의하여 차기회장에 선출되었다. 2008년 1월부터 2년간 IUPAC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게 될 진 교수는 대한화학회장과 고려대 부총장을 거쳐, 현재 과총 이사, 과학문화진흥회 부회장, IUPAC 고분자분과 회장을 맡고 있다.

IUPAC은 1919년에 설립된 화학분야 국제연맹체로서 한국은 1963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70개국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년마다 정기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하며, 화학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대한화학회에서는 이번 총회에 5명의 대표단(단장: 차진순 대한화학회 회장)을 파견하여 진 교수의 선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으며, 차기 모임은 2009년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력직원·석박사직원 채용한 중소기업에 급여지원

1인당 연간 1,440만원

고급인력인 석·박사(이공계, 상경계)나 경력 3년 이상인 기술인력을 2004년 10월 이후 채용을 하였거나 향후 채용을 하게 되는 중소기업에는 월 120만 원씩 1년간 1천440만 원을 정부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고급 경력자나 석사 박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급여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현재 1천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금 수혜를 받고있다고 지에스테이타(주)가 밝혔다.

문의: 지에스테이타(주) 기업지원팀 02-2697-0565, 0560 cym@gldata.co.kr

지역별로 '연구개발 지원단' 설치한다

9월부터 1개 지자체 시범실시, 16개 지자체로 확대

지방의 R&D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R&D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연구개발 지원단' 육성사업을 실시한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지역별 연구개발 지원단' 육성사업은 제2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06.12)에서 심의확정된 '지방R&D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단은 지자체내에서 추진되는 지방R&D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실시, 지자체 과학기술 전담부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지자체 R&D사업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기획과 지자체 R&D사업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간 연계 및 중복 조정을 위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지양하고 지자체내의 R&D사업 관련 기존 조직 중 지원단의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을 지정하여 지원단을 설치하며, 지원단 선정과 조직구성 등은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주도적인 R&D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8월 14일까지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8월말까지 1개 기관을 선정하여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16개 시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02-2110-3783

연구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 결과

59개 공공연구기관 대상, 개선방안 마련하여 9월 관계장관회의 보고 예정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은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59개 공공연구기관(24개 출연연,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및 인프라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기관이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의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등 성과관리 전문인력 활용 수준이 낮고, 기술이전

대덕 비즈니스 허브센터 기공식

기술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450억원 투자 2009년 준공

대덕특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비즈니스 허브센터의 기공식이 지난 7월 26일 열렸다. 그간 대덕특구에서는 특구내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첨단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왔으나, 금융·법률·회계·경영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을 뿐더러, 종합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되는 대덕 비즈니스 허브센터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 단절된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기업간에 체계화된 과학기술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소 기업·지식기반 벤처기업의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특구 사업의 연계성 확보 및 입주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구의 물리적 랜드마크로서 특구인의 휴식과 창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

대덕 비즈니스 허브센터는 대덕특구지원본부 구 사옥 대지 4,557.5㎡에 연면적 29,058㎡(지하 4층, 지상 11층)로 건설되는데



대덕 비즈니스 허브센터 조감도

2009년초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기술이전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며, 둘째 특허 출원 전 심사 및 가치평가 등과 같은 특허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단순히 개인 업적평가만을 목적으로 출원함으로써 활용되지 않는 특허의 양산과 더불어 특허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주관연구기관이 '특허출원을 포기한 기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공유중인 특허의 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 2곳 추가 설립 승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출자 등을 통해 설립되는 연구소기업인 (주)오투스와 (주)매크로그래프가 지난 7월말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 안의 정부출연(연) 등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민간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결합해 설립하는 기업으로

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제4호 연구소기업으로 승인된 (주)오투스는 차량진단 및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한 안전운행서비스 등 텔레매틱스 분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표제품인 자동차 진단모듈을 차량에 부착하면

연구소기업 설립현황

연구소기업	연구기관	승인일	사업분야
(주)선바이오텍	원자력(연)	'06. 3월	식·의약품 및 화장품
(주)템스	기계(연)	'06. 12월	매연저감장치, 천연가스(CNG·LNG) (주)차량 부품
(주)재원세라텍	표준(연)	'07. 5월	세라믹 부품소재(세라믹 베어링 등)
(주)오투스	전자통신(연)	'07. 7월	텔레매틱스 분야 (자동차 진단모듈 등)
(주)매크로그래프	전자통신(연)	'07. 7월	CG 등 영상 특수효과

차량의 운행정보 등 관련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등 휴대 단말기로 전송되어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나 차량의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제5호 연구소기업인 (주)매크로그래프는 제44회 대중상 영화제 영상기술상을 수상한 영화 '중천'에 활용되기도 했던 '디지털 액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특수효과 및 애니메이션 등 CG(Computer Graphics)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등에 뛰어들게 되는데 향후 할리우드 CG 특수효과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는 ETRI의 (주)오투스, (주)매크로그래프 설립을 계기로 연구소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개선하고 경영·마케팅 등 설립 이후에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 기술자립 박차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확정

지난 8월 2일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가 개최되어 '제1차 핵융합 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등 4개 안전(보고안전 2개, 의결안전 2개)이 심의·확정됐다.

보고 안전은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현황 및 운영계획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며, 의결 안전은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 지정·운영방안이다.

이번 제1회 국가핵융합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는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 근거해 처음 개최된 것으로, 핵융합에너지 관계부처 차관 및 전문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문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핵융합지원과 02-509-7771

고리 원전 1호기, IAEA 전문가 검토 받는다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과학기술부는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 검토(Peer Review)를 받음으로써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IAEA 전문가 검토에는 미국, 스웨덴, 스페인, 독일, 일본 등의 원자력 관계전문가 7명이 참여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면담(질의·응답) 및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분야는 기기 및 구조물의 수명 관리, 기기의 경년열화관리, 최신 운전경험의 반영,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분야 등이다.

이번 전문가 검토는 현재 원자력안전규제 전문 지원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와는 별도로 수행되는 것으로, 제3자인 해외 전문가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IAEA 전문가단은 임무 완료 후 9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정식 제출하게 되며, 1~1.5년 후에는 검토 당시 도출한 지적·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국내 심사결과에 반영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되, 이번 전문가단의 최종 결과는 국내에서 별도의 심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계속운전 안전성 여부를 결정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될 즈음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 9일(설계수명 만료일: 6월 18일)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채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2007년도 제2회 신기술, 44개 선정

골든커넥터산업의 '무부하 터미널 커넥터 제조기술' 등 44개 기술이 2007년도 제2회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에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기업에서 신청한 147개 기술에 대해 서류·면접·현장심사, 이의신청 및 3차 종합회의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 30개, 대기업 기술 11개, 공동개발 기술 3개 등 총 44개 기술을 금년도 신기술로 선정하고, 지난 8월 21일 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기술 인증은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기술개발 자금 우대지원 등의 혜택을 주게 된다.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02-3460-9021

정리 | 이창규 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